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태 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선의 조형적 이미지를 이용한
선 상감(線象嵌) 도자 장식 연구

20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민숙

선의 조형적 이미지를 이용한
선 상감(線象嵌) 도자 장식 연구

박 태 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민숙


인 준 서

박민숙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김지관 

심사위원 박태성 

심사위원 한영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선(線)은 사물의 형태적 특성과 성격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다. 선은 방향과 흐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느낌과 감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선은 감정을 담은 시각적인 표현이 가능할 수 있기에 이를 구체적인 조형언어로서의 전환 또한 가능하며 실제 현대예술에 있어서도 선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도자장식에 있어서도 선은 주요한 표현수단이며 그림이나 조각 등을 주로 표현되고 있으나 선이 가지는 조형적 특질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 상감기법을 들 수 있다. 선 상감기법의 대표적 예는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을 들 수 있으며 고려청자의 화려함은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찰하고 선의 종류 중 가장 순수한 성격과 간결한 형태를 가진 직선에 주목하였다. 직선의 조형화에 있어 시각적인 형상에 의한 감정이입 방법으로써 ‘반복’이라는 표현 수단을 사용하였다. 선의 반복이라는 행위를 통한 면의 확장과 도출된 면의 질감을 바탕으로 분절과 밀도라는 표현방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이후 수평, 수직 등과 같은 기하학적 형식에 의거한 패턴화 작업을 통해 앞서 설명한 이미지 도출방법과 패턴화라는 일련의 ‘선의 조형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선의 도자장식표현에 있어 명확한 형태와 구체적 질감에 의한 표현방법으로써 상감기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도구와 화장토에 대해 적합한 소재 및 비율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조형화 과정으로 도출된 선의 이미지를 선 상감기법을 이용한 감성과 감정을 가진 선으로의 표현을 통해 도자장식표현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동기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본론	3
1. 선의 특징 및 조형적 역할	3
1)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특성	3
2) 선의 반복에 의한 효과	5
2. 선의 반복에 의한 이미지 패턴화	8
1) 선의 반복에 의한 이미지 형상화 과정	8
2) 선의 이미지를 이용한 기하학적 패턴 제작	14
3. 선 상감에 의한 패턴 제작	18
1) 선 상감 제작기법	18
2) 선 상감에 의한 이미지 및 패턴표현	24
4. 시작품	27
III. 결론	42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선의 분류 및 특성	4
【표 2】 반복되는 선의 길이와 방향에 따른 이미지	8
【표 3】 분절에 의한 이미지	10
【표 4】 선의 밀도 변화에 따른 이미지	12
【표 5】 반복적인 선에 의한 도형화된 이미지	13
【표 6】 패턴의 구성 형식 분류	15
【표 7】 이미지에 따른 패턴의 변화	16
【표 8】 선 상감 도구와 상감효과	20
【표 9】 초벌 상감 과정	23
【표 10】 도형 이미지의 패턴을 적용한 선 상감 이미지	24

그림 목 차

【그림 1】 빅토르 바자렐리, Kurt, 1983	7
【그림 2】 브리젯 라일리, Echo, 1998	7
【그림 3】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고려, 간송미술관	18
【그림 4】 분청사기 상감 초화문 태호,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18

시 작품 목 차

【작품 1】 흑색 선 실린더	27
【작품 2】 회색 선의 사물	28
【작품 3】 회색 선 실린더	29
【작품 4】 검은 점 실린더	30
【작품 5】 푸른 선 실린더	31
【작품 6】 푸른 점 볼	32
【작품 7】 검은 선 접시 세트	33
【작품 8】 검은 선 작은 실린더	34
【작품 9】 검은 점 합	35
【작품 10】 회색 선 찻잔 세트	36
【작품 11】 검은 대각선 합	37
【작품 12】 검은 선 컵	38
【작품 13】 검은 점 컵	39
【작품 14】 선과 사물	40
【작품 15】 선과 향기	41

I. 서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선은 작가의 감정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또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조형 표현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미술에서는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중요한 조형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인간의 내면세계와 같은 깊은 정신적 표현 또한 가능하게 한다.

선에 의한 감정 표현은 구체적인 선의 형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의 모양, 길이, 방향의 조절에 따라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선의 중첩과 응집, 반복 등의 행위를 통해 재구성된 형태의 도출은 패턴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미적 작용뿐만 아니라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조형적 의미를 포함한 특유의 장식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생각해 보면 선이 가지는 조형성은 흙이라는 도자만이 가지는 특유의 소재 및 표현방법과의 접목을 통해 도자장식에 있어 새로운 표현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의 반복에 의한 형상표현은 보다 더 구체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으며 면으로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조형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의 '반복'에 의한 형상의 도출과 패턴화를 통하여 도자장식표현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심미적 기능과 조형적 의미가 내포된 작품을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선의 조형적 이미지를 활용한 도자 장식으로서의 표현은 선의 구체화된 형상화 과정과 도자라는 소재의 특성상 이에 필요한 표현기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선의 조형적 표현과정과 도자 장식으로서의 표현과정으로 나누어 선에 대한 고찰과 조형적 특징을 도출하고 흙이라는 소재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선의 종류와 형태를 표로 정리하고, 선의 밀도, 길이, 방향 등의 조절에 의한 표현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선의 반복에 의한 질감과 패턴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길이와 방향에 따라 변화하는 선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길이의 반복되는 선을 수직, 수평, 방사라는 일정한 형식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선의 반복으로 구성된 이미지는 ‘분절’의 특성과 ‘밀도’의 변화처럼 추가적인 방법을 통하여 별개의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의 반복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패턴에서 얻을 수 있는 조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앞서 도출된 도형 이미지를 통해 기하학적 패턴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통기법인 상감기법을 활용한 제작방법에 있어 도구와 화장토에 대한 비율 실험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초벌상감에 대해 구체적인 제작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선에 의한 이미지표현방법과 선 상감에 의한 도자장식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선의 특징 및 조형적 역할

1)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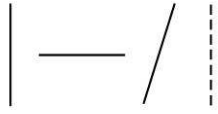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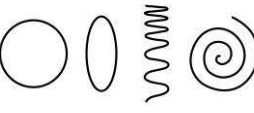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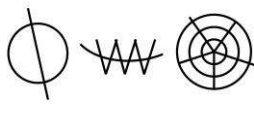
유클리드(Euclid)의 기하학에 따르면 ‘선’은 양 끝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들의 집합에 의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의 형태를 직선형, 곡선형, 혼합형으로 나누어 선의 종류와 그 안에서 형태에 따라 나뉘는 세부적인 선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각각의 선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을 정리하여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직선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장 단순한 형태이기에 간결하고 명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향과 모양에 따라 수직선(vertical), 수평선(horizontal), 사선(diagonal), 점선(dotted)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선은 서 있는 것 같은 끝은 느낌과 긴장감을 주며, 수평선은 반듯하게 뻗어 나가는 직선의 형태로 고요함과 안정 등의 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그에 비해 사선에서는 약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며, 점선은 짧은 선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리듬이나 박자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선은 보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긴장감, 고요함, 강직함, 간결함, 엄격함 등의 이미지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1) 유클리드(Euclid, B.C 330~275), 그리스의 수학자, B.C 300년경에 유클리드는 기하학적 결과를 13권으로 편찬한 <기하학 원론(Stoikheia)>을 저술하였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정의·공준·공리·명제 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제 1권에 합동, 평행선, 직선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도형에 관한 정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선의 분류 및 특성

선의 종류	선의 형태	선의 성격 및 특징
직선 (수평선, 수직선, 사선, 점선)		긴장감, 고요함, 강직함, 간결함, 엄격함
곡선 (원, 타원, 파장선, 나선)		자유로움, 무한함, 움동성, 순환성, 복잡함, 생동감
직선과 곡선의 혼합형		복잡함, 다채로움, 예술적

곡선은 직선보다 정적이지 않으며 일렁이는 파도처럼 선이 부드럽고 유동적이므로 자유로운 동시에 불규칙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곡선은 크게 원(circle), 타원(oval), 파장선(wave), 나선(spiral)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과 타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에 무한함과 순환적 느낌을 주며 파장선과 나선의 반복적인 곡선의 형태는 선의 역동성과 여백의 구조에 따라 흥분감과 긴박함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울동감, 속도감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혼합형은 직선과 곡선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형식이다. 혼합형은 복잡한 문양의 장식이나 패턴을 제작할 때 적용될 수 있는데, 직선이나 곡선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하고 화려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은 배열과 결합에 따라 여러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데, 선과 선의 배열을 통해 형성된 면은 조합에 따

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에 조형 표현 방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예술에서는 선의 이러한 특성을 통해 시각적인 지각의 대상에 대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현대의 조형예술에서 선은 두께와 길이, 방향에 따라 여러 감정과 표정을 느낄 수 있는 조형 요소로 쓰이며, 작가의 의도에 따라 심상적, 운율적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의 방향을 달리함에 따라 특정한 운동성을 가지며 밀도에 따른 명암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선과 선 사이의 여백을 통해 다양한 질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결합되거나 교차된 선은 실제로 움직이거나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성향이 감정을 부여하여 무언가를 연상시키거나 내면에 있는 감정의 표출을 도와주는 시각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 여하에 따라 선의 밀도, 길이, 방향 등을 조절함으로써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2) 선의 반복에 의한 효과

반복(反復)은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한다.²⁾ 이러한 반복의 이미지는 자연과 사물에서도 흔히 관찰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규칙 또는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조형표현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의미를 내포하는 하나의 조형언어으로써 활용하기도 한다.

반복이라는 행위는 대상을 동일한 패턴에 의한 연속적인 작업으로써 쉽고 단순하게 느낄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규칙적이며 통일감 있는 결과물을 얻

2) 반복(repetition)이란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단위로 하여 둘 이상을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박대순, <현대 디자인 용어사전>, 디자인 오피스, 1996, p.124.

을 수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시각효과가 인간으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³⁾

예를 들어 도자 장식의 경우 접시에 그림을 그릴 때 접시의 중앙부에는 사실화를 주변부에는 연속적 패턴을 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식의 하나이다. 여기서 주변부의 반복된 패턴은 중심부의 사실화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액자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장식 전체의 안정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위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반복에 있어서 개체 상호 간의 규칙적 조화와 균형은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서 미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데 개체의 구성내용과 배치 등의 조절을 통해 감상자의 지각 과정 중 이러한 특성의 반복 작업에 따른 착시, 환상 등과 같은 ‘미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옵아트(Optical Art)의 규칙적인 기하학적 구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옵아트의 기하학적 구성에서 개체가 간략화와 상징화를 통하여 순수한 단어와 같은 의미를 두었다고 가정한다면 결과물에 해당하는 시각적 착시물은 반복패턴에 의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써 보다 더 의도적인 조형성과 장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착시적 반복현상은 보는 이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동적인 ‘리듬감’을 들게 함으로써 미적 아름다움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복에 의한 시각적 감동은 조형예술에 있어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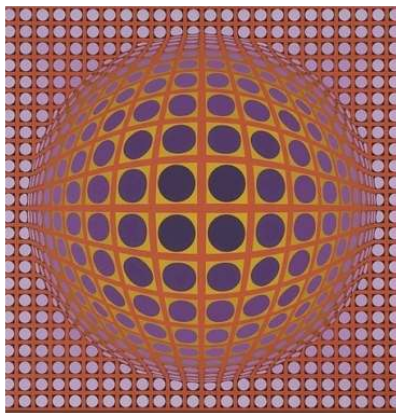
옵아트의 대표적인 작가 빅토르 바자렐리(Victor Vasarely)와 브리짓 라일리(Bridget Riley)의 작품(【그림 1】 , 【그림 2】 참고)은 이와 같은 반복의 미

3) 반복적인 미술 행위는 자유, 시간, 수행, 축적성이 결합되어 형상 혹은 내면의 반복을 통해 무위(無爲)의 상태에 접근하여 심층의 가장 순수한 자아와 만나 완전히 몰입하는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런 반복적 행위는 무의식 속에 간혀 있던 내면의 억압된 자아와 만나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감정의 승화를 경험하여 내적 치유를 도와 줄 수 있다. 박소연, 「반복적 미술 행위를 통한 자아치유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2011, p.10

적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와의 관계에 의한 원근법적인 표현 기법과 시각적 착시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상적인 형태의 반복은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의미의 강조는 언어에서 보여주는 상징적 내용과 유사한 압축되고 절제된 상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복이라는 행위는 매우 유용한 조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형요소의 활용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숨겨진 의도까지 포괄한 시각적 기능의 조형언어로서의 역할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상, 선에 의한 개체 형성과 반복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조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심리적 안정감, 미적 효과, 리듬감, 상징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빅토르 바자렐리,
Kurt, 1983



【그림 2】 브리젯 라일리, Echo,
1998

2. 선의 반복에 의한 이미지 패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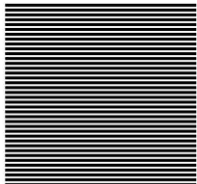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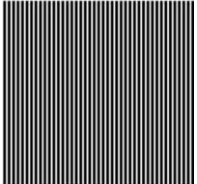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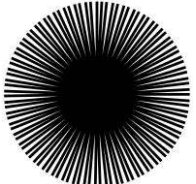
1) 선의 반복에 의한 이미지 형상화 과정

본론 1장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선에 포함된 수직선, 수평선, 사선 등은 그 형상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선의 형태에 있어 기본적인 구성의 변화를 더 한다면 기존의 성격과는 별개의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선의 길이와 방향의 변화는 선의 속도와 운동감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조절 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선의 반복에 의한 면으로의 확장은 보다 더 구체적인 이미지 또는 느낌 등의 표현을 할 수 있기에 조형 표현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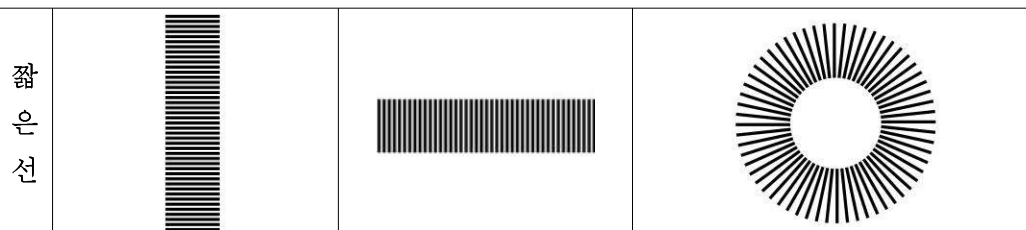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1장에서 선의 반복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조형적 효과를 확인 하였기에 체계적인 반복 작업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직선을 긴 선과 짧은 선으로 나누어 각각 가로, 세로, 방사 형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에 분절(分節)을 통한 파생된 이미지 도출과 선의 밀도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패턴화 된 최종 이미지를 정리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복되는 선의 길이와 방향에 따른 이미지

【표 2】 반복되는 선의 길이와 방향에 따른 이미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방사 형식
긴 선			

반복되는 긴 선을 가로 방향으로 구성했을 때는 수평적인 직선의 반복으로 잔잔한 느낌의 사각형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 선이 끊기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긴 줄과 같은 연속적인 반복 형태로 느껴진다. 세로 방향 구성에서는 나무의 단면에서 볼 수 있는 나뭇결 같은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 가로와 세로 모두 질감의 느낌이 강한 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방사형식의 구성은 다양한 방향에서 그어진 많은 선에 의해 가로, 세로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적으로 보이며 원형의 형상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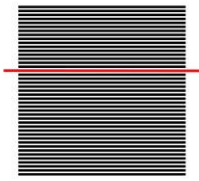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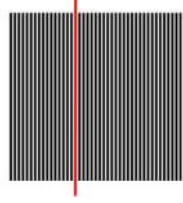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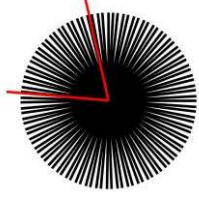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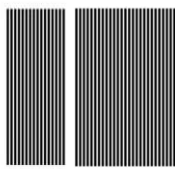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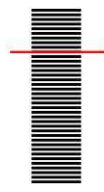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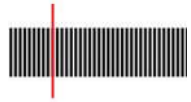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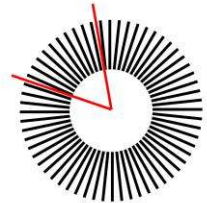





반복되는 짧은 직선을 가로 방향으로 구성했을 때는 선이 좁은 간격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자잘한 느낌과 긴 선의 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느낌이 든다. 세로 방향으로 구성했을 때는 바코드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선의 연속성이 더 빠르고 힘 있게 느껴진다. 방사형식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 조건으로는 긴 선의 방사형식에서 구성된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짧은 선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 부여를 통하여 각기 다른 형상의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선 사이의 간격이 넓고 중심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밀도가 낮아져 긴 선의 방사형식에 비해 가볍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준다.

(2) 분절에 의한 이미지

반복에 의해 기하학적 형태로 형상화된 2차원의 패턴에서는 회전, 이동, 절단 등과 같은 조형표현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조형적 요소가 강한 부분만을 취하고자 할 경우 그 부분만을 절취하거나 나누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앞서 도출된 긴 선과 짧은 선의 패턴을 대상으로 조형성을 강조할 수 있는 단면을 절단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3】 분절에 의한 이미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방사 형식
긴 선			
분절 후			
<p>정사각형 구조의 패턴에 있어 가로, 세로 방향 이미지를 1/3 지점에서 분절했을 경우에는 각기 다른 직사각형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도출된 사각형의 형태는 가로방향의 경우 창에 걸쳐있는 블라인드를 연상시키며 세로 방향의 경우 벽 또는 기둥과 같은 수직적 구조의 모던한 느낌을 준다. 또한 가로와 세로방향의 접목을 통하여 건축적 구조의 기하학적 형상의 도출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방사 형식 구성에서 도출한 원형의 이미지를 80도 정도의 각으로 분절했을 경우에는 부채꼴 모양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각도에 의한 다양한 이미지 제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p>			
짧은 선			
분절 후			

직사각형 구조의 가로, 세로 방향 이미지를 1/3 지점에서 분절했을 경우에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긴 선을 분절했을 때와 비슷한 형식이지만 짧은 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지의 크기가 더 작으며 선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경우에는 길이가 짧을수록 더 단단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빗살과 같이 얇고 뻣뻣한 참빗이나 칫솔모 같은 사물을 연상하게 하였다. 방사 형식의 경우 80도로 분절했을 경우 떠오르는 태양의 햇빛과 같이 한 방향으로 퍼지는 듯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3) 밀도 변화에 의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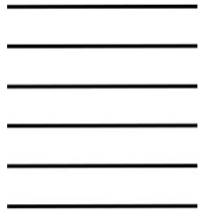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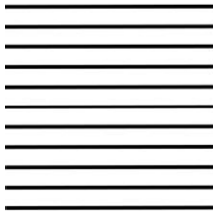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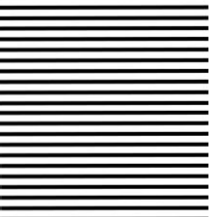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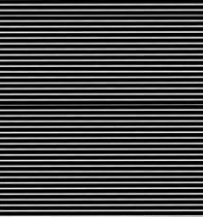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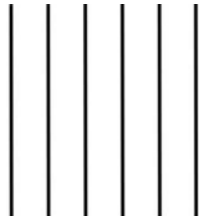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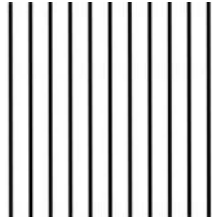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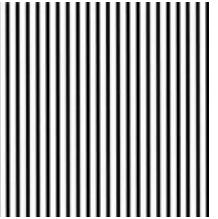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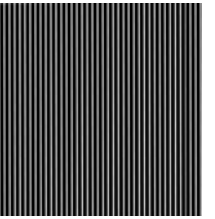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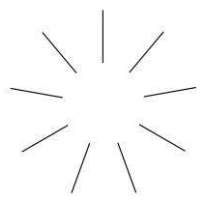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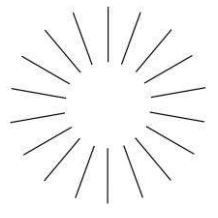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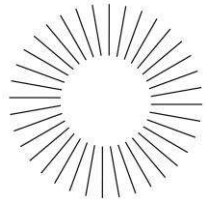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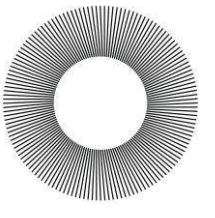
선의 밀도에 따른 명암의 변화는 사물의 윤곽을 구체화하고 무게와 입체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간격, 방향, 크기, 대비 등 다양한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원근감과 공간감을 형성한다.

밀도의 변화에 따라 보이는 특징은 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높은 밀도의 드로잉은 강하거나 단단하고 막혀있는 느낌을 준다. 대상의 표현에 있어서도 고밀도의 표현은 많은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의 흐름’ 또는 ‘에너지의 축적’과 같은 은유적 느낌의 표현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선의 밀도에 의해 연상되는 장면의 포착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고밀도인 직선의 경우 장대비가 거세게 쏟아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며 반대로 낮은 밀도의 드로잉은 가는 부슬비와 같은 부드러우며 빈 공간에서 오는 가벼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표 4】는 선의 방향과 선의 밀도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서 밀도에 따른 면의 질감 또는 명암 등이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밀도가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표 4】 선의 밀도 변화에 따른 이미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방사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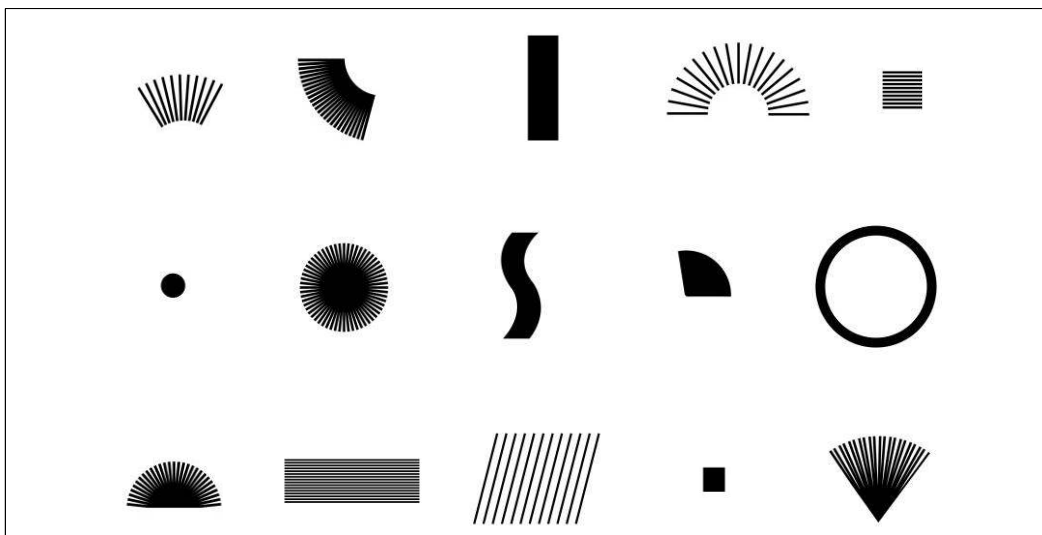
직선을 가로, 세로, 방사 형식으로 구성하여 밀도 변화에 따른 이미지를 4단계로 제시하였다. 단계에 따라 선의 개수가 규칙적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밀도는 증가하고 명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단계에서는 선과 선 사이에 공간이 많아 선 하나하나가 강조되어 보인다. 밀도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질감의 성격이 도드라지기 시작하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룰수록 선이라는 개체 자체에 집중되었던 시각은 점차 구성된 면의 외관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 밀도 변화에 따른 이미지는 사용되는 선의 굵기 또는 간격의 조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이미지 도출을 활용한 패턴 제작은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형태와 질감 등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4) 최종 이미지 도출

본 연구에서는 반복과 분절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앞서 시도한 선의 패턴화 과정과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상의 패턴을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아래의 패턴들은 일견 점, 선, 면을 연상시키는데 같은 형태에서도 선의 밀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다른 느낌의 재미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선의 길이 비례에 따라 점 또는 특정한 도형 이미지로의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직선 방향에서 약간의 곡선으로의 변화를 통해 사선의 느낌을 가진 이미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방사형식의 분절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이미지는 필연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통해 더 풍부해진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상, 선의 반복에 의한 이미지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선의 길이, 방향, 강약 등의 대비 등의 조절 기능에 의한 다양한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선의 패턴화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선의 반복에 의한 면으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의 표현 여부에 따라 의도에 의한 의미부여 또한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표 5】 반복적인 선에 의한 도형화된 이미지



2) 선의 이미지를 이용한 기하학적 패턴 제작

기하학적 패턴은 점, 선, 면을 기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질서를 가진 형태나 유형으로 건축, 회화, 공예를 포함한 다방면의 분야에서 중요한 장식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기하학적 패턴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형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성’이다. 기하학적 패턴은 기본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도형들을 배열함으로써 제작되는데, 이를 통한 구성은 화려하고 복잡하기보다는 절제되고 간결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기하학적 패턴은 보는 이에게 단순한 시각적 감각을 줄 수 있으며, 같은 도형이라도 배열의 위치와 색감의 다양성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연결성’이다. 기하학적 패턴은 정확한 수치에 따른 비례에 의해 제작되는 형태이다. 이런 이유로 전혀 다른 패턴이라도 구조와 간격에 맞춰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배열을 가진 패턴을 창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을 사용한 스트라이프 패턴(stripe pattern)과 점을 사용한 도트 패턴(dot pattern)을 연결한다고 할 때, 스트라이프 패턴 사이에 도트 패턴이 들어감으로써 두 패턴이 조화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스트라이프 패턴의 선은 패턴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패턴이 적용되는 공간을 분리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기하학적 패턴은 다양한 조합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패턴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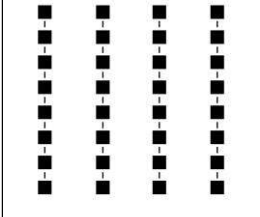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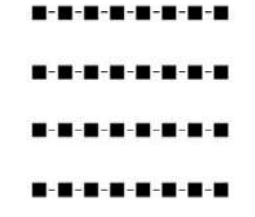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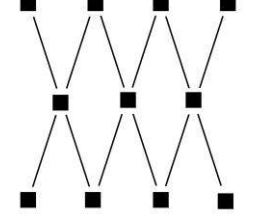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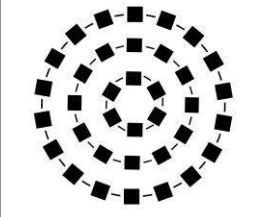
세 번째는 ‘주목성’이다. 기하학적 패턴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순한 이미지로 구성되며 연결성이 포함된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대상의 표면에 시각적, 촉각적인 특징을 부여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태는 압축되고 기호화된 언어로써 상징적 의미를 지니

고 있기에 유기적이거나 자연적인 형태에서 볼 수 있는 서술적인 느낌보다는 시인성이 강한 사인(sign)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패턴은 일정한 법칙에 의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다른 형태에 비해 이해하기 쉬우면서 시각적으로도 강조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은 조형 작품과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패턴에서 얻을 수 있는 단순성, 연결성, 주목성 등이 조형적 표현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에 선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하여 패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6】 패턴의 구성 형식 분류

수직	수평	교차	원형
			

패턴은 크게 규칙적인 패턴과 불규칙적인 패턴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구자는 선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규칙적인 패턴 구성을 기준으로 형식을 분류하였다.

패턴 구성에 있어서는 시각적 균형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적 구성, 수평적 구성, 교차 구성, 원형 구성으로 총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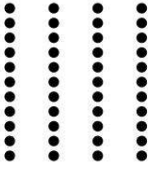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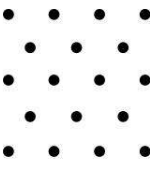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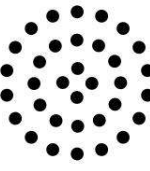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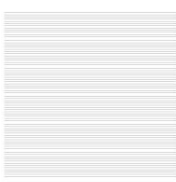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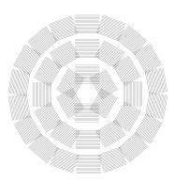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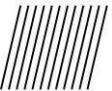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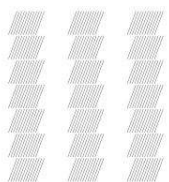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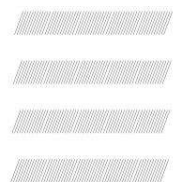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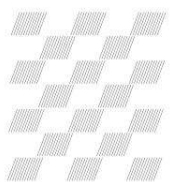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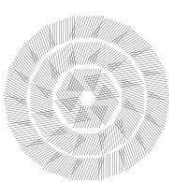
수직적 구성과 수평적 구성 형식은 단순 반복이 적용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소가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패턴은 단조로울 수 있으나 통일감을 얻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교차 구성은 구성요소가 상호 간에 엇갈리며 형상적으로는 교차되어 나타나는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 형식에서는 시각요소로 어떤 형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리듬감과 느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원형 구성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성요소가 나열되는 방식이다. 원형 구성의 반복은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파동의 형식과 유사한 동심원적인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 패턴 구성 방법을 【표 5】에서 도출된 도형화된 이미지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용된 이미지의 형상적 특징 여하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상적 패턴 도출과 시각적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미지의 구성 방식에 따라 매우 다른 이미지의 패턴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밀도에 따라 패턴의 선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이미지에 따른 패턴의 변화

이미지	수직	수평	교차	원형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의 반복에 의한 면의 확장이 하나의 이미지로 구현된 것과 같이 이미지의 반복에 의한 패턴으로의 전환은 큰 의미에서는 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확대된 시각영역으로 보자면 패턴의 연속 또한 외관상으로는 선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반복적 선을 이용한 패턴의 도출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기하학적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렇게 도출된 패턴을 도자기에 장식적 요소로써 적용하고자 하였는데, 전체적인 패턴의 구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면적이 넓은 형태의 기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형태는 기본형인 원통형으로 제작하고 전의 넓이에 변화를 준 기(器)와 합(盒)의 형태를 가진 작품을 추가로 제작하였다. 패턴은 도자기의 표면에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수직, 수평 형식의 패턴은 실린더 형태에, 교차와 원형 구성의 형식은 기와 합에 주로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3. 선 상감에 의한 패턴 제작

1) 선 상감 제작기법

선을 표현할 수 있는 도자 장식 기법으로는 드로잉, 상감, 양각, 음각 등이 있는데, 이 중 상감은 도자기 표면에 흙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색의 화장토를 채워 넣어 장식하는 것으로서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이 대표적인 예이며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또한 이에 해당한다.

고려청자에서의 상감은 청자토를 파내고 그 안에 백토 또는 흑토를 메워 넣어 무늬를 만든 것으로 매우 화려하고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균형미를 갖춘 완성도 높은 장식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분청사기의 상감은 고려청자에 비해 투박하고 마치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거친 느낌의 문양이 많으며, 도장을 사용하여 눌러 찍어 무늬를 만드는 인화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3】 청자상감운학문매병,
고려, 간송미술관



【그림 4】 분청사기 상감 초화문
태호,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 과 【그림 4】 에서 보이는 선 상감은 식물의 줄기나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거나 그림 사이의 공간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사용하는 도구

나 굵는 방식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감기법에 사용된 다양한 선의 느낌은 에칭판화에서 느낄 수 있는 조각화 된 질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청자와 분청사기의 보여지는 고도의 예술적 감성은 이와 같은 조각화 된 선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감기법에 의해 표현되는 선의 예술적 감성과 흙의 질감은 앞서 고찰한 ‘선’이 가지는 다양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작품 제작의 주요 기법으로 상감을 활용하게 되었다.

상감기술에 있어 기본 조건으로는 흙을 파내기에 적합한 도구와 파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화장토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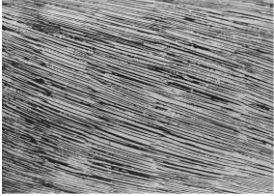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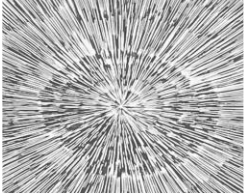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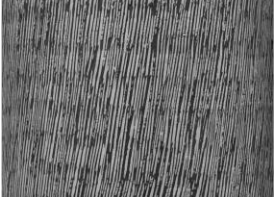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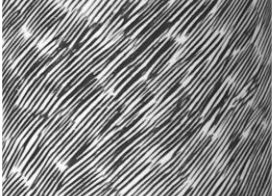

화장토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물과 화장토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에 유의해야 하기에 안정된 사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 상감의 경우 또한 도구의 소재와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느낌의 선을 표현할 수 있기에 여러 형태의 칼과 소재를 이용하여 상감 문양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선과 패턴 제작에 적합한 도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 상감 도구

선의 표현에 있어서는 세밀하고 얇은 선부터 강하고 굵은 선까지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선의 형태는 아주 얇고 명확한 형태의 선이 요구되기에 강철 또는 초경합금 등의 소재에 의한 도구들을 먼저 점검하였으며 송곳 형태의 뾰족한 침 부분의 형태에도 주의를 기울여 적합한 형태를 찾고자 하였다. 소재의 강도는 선의 형태와 질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현상도 감안해야 했기에 이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총 네 가지 타입의 도구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선 상감 도구와 상감효과

	도구	도구를 사용한 효과	
①			
②			
③			
④			

【표 8】의 ①은 0.1mm 시침핀 여러 개를 나무판 사이에 끼워 넣어 만든 도구이다. 시침핀을 일렬로 고정시켜 기물 표면에 작은 선을 반복 조각할 때 드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제작하게 되었다. 여러 개의 핀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도 있지만 도구에 힘을 가하면 핀에 힘이 분산되어 일정한 선을 규칙적으로 긋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규칙적인 정교한 선보다는 불규칙한 패턴 제작에 더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침핀은 끝이 빠르게 마모되어 선 상감 작업 진행에 적합하지 않았다.

②는 0.2mm 송곳으로 ①의 시침핀 하나의 형태를 확대한 것과 같은 도구가

다. 이 도구는 규칙적인 선의 표현이 가능했으나 소재의 이유로 마모의 정도가 심했으며 금속의 형태가 얇고 길기 때문에 선을 그을 때 정확성이 떨어지고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정한 두께의 선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은 연필처럼 끝이 원뿔 형태로 되어있는 철 핀으로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립감이 가장 뛰어났다. 끝이 매우 뾰족하여 얇은 선을 표현하기에 적합했으며 마모의 정도도 심하지 않아 연속적인 작업에도 무리가 없었으나 얇은 선을 조각할 때 핀을 직각으로 세워서 표현해야 하기에 계속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손에 무리가 가는 단점이 있다.

④는 초경합금으로 제작된 패널 라인용 조각도로 끝이 목공용 끌과 같이 납작한 형태이다. 이 도구는 손이 도구를 쥐는 각도와 도구 끝의 모서리가 기물의 표면에 닿는 각도가 일치하여 힘을 주어 선을 긋게 되면 그 힘이 그대로 기물의 표면에 전달되어 깊고 굵은 선의 표현까지 가능하였다. 소재의 특성상 내구성이 강하여 특별한 관리 없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상 네 가지 도구의 사용 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중 ④의 초경합금 소재의 도구가 선 상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작품 제작 과정에 사용하였다.

(2) 초벌상감

상감기법은 1차 소성 전 기물의 표면에 음각으로 조각을 낸 다음 다른 색의 화장토를 얹어 긁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물과 화장토의 수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기물에 균열이 가거나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장토와 기물의 건조 속도를 일치시키거나 1차 소성에 의한 소지의 건조 수축률이 멈춘 상태에서 화장토를 바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토의 안정된 도포를 위해서 1차 소성 전후의 소지에 화장토를 발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물레성형 후 반 건조 상태에서 화장토를 바른 경우 면적이 크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조각된 패턴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패턴이 전체 기물에 적용된 경우에는 색화장토를 바르고 굽어내는 과정에서 갈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이것은 전체 기물에 도포된 화장토와 소지와 건조 수축률이 틀려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작업의 특성상 세밀한 선 조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분조절에도 불구하고 건조가 지나치게 많이 되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작업에 있어서 수분 공급과 습식실 보관 등의 주의를 기울여 일정 부분 개선은 되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의 특성상 효율적인 개선에 이르기까지는 못하였다.

화장토와 소지 간의 수축률에 의한 갈라짐 문제에 있어 해결 방안으로서는 초벌 소성에 의해 건조 수축이 끝난 초벌 기물에 화장토를 도포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제작방법은 먼저 반 건조된 소지에 문양을 조각한 후 건조와 초벌 소성을 실시한다. 이후 조각된 초벌기에 화장토를 도포하고 굽어내기에 기존의 상감기법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초벌 된 기물은 형태적 변형이 적고 건조 수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갈라짐의 문제점들은 발생하지 않으나, 소성 과정에서 제거된 수분 때문에 순간적으로 흡수하는 수분의 양이 더 많은 초벌기의 특성상 생 소지에 사용하던 기존의 화장토는 안착에 많은 문제가 있어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토의 주된 성분인 백자 소지에 장석과 알루미나를 더해 안정된 안착과 갈라짐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장석은 초벌기에 화장토의 안정된 안착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알루미나는 급격한 수축률을 줄여줄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일정량의 비율의 화장토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표 9】 초벌 상감 과정

<p>제 작 과 정</p>			
<p>설 명</p>	<p>도구를 사용하여 정형된 기물의 표면에 음각으로 패턴을 조각한다.</p>	<p>초벌 된 기물에 화장토를 바른다.</p>	<p>화장토가 마르면 사포를 사용하여 표면을 정리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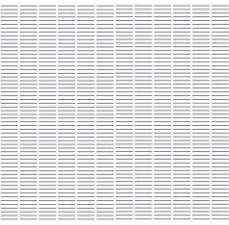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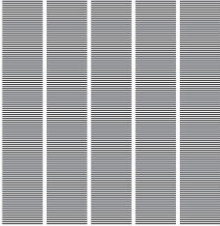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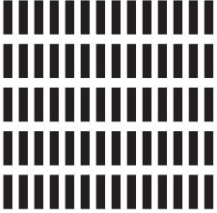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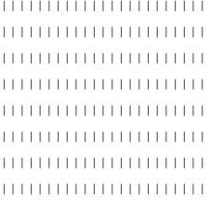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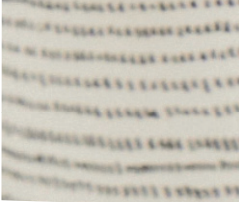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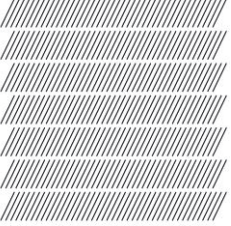

【표 9】는 초벌상감과정을 제시한 것으로서 소지 정형 후 반 건조 상태에서 선의 조각과 초벌기에서의 화장토 도포 그리고 이후 사포로 표면정리까지 일련의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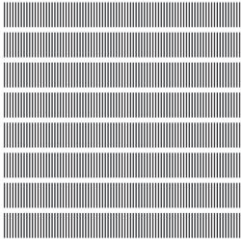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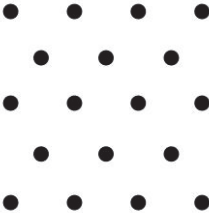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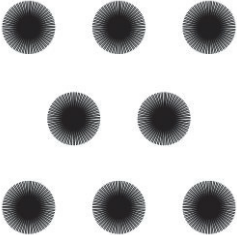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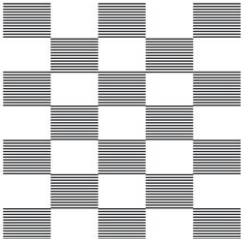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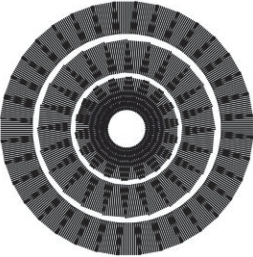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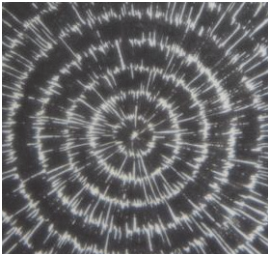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안정된 초벌상감용 화장토의 안정된 배합비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색 안료를 사용하여 색화장토를 제작하였다. 발색 실험을 위해 고화도 안료를 비율별로 혼합하여 색화장토를 만든 후, 선이 조각된 시편을 제작하고 그 위에 화장토를 발라 1250℃에 산화 소성하였다. 색상은 검은색을 중심으로 하늘색, 노란색, 무채색 계열의 회색 등을 제작하였다. 특히 백자의 하얀 표면과 대비되는 검정 계열의 색상을 얻기 위해 흑색 계열의 다양한 안료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안정된 초벌상감 화장토와 색상의 조화에 의한 선 상감의 표현은 본 연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선의 구체적 형상과 질감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선 상감에 의한 시각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초벌상감에 의한 촉각적인 느낌도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촉각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초벌상감에서 화장토의 수축률이 기물의 수축률보다 크다는 데에 기인한다.

2) 선 상감에 의한 이미지 및 패턴표현

【표 10】 도형 이미지의 패턴을 적용한 선 상감 이미지

no	도형 이미지	패턴 형식 (수직)	선 상감 이미지
1			
2			
3			
no	도형 이미지	패턴 형식 (수평)	선 상감 이미지
4			
5			

6			
no	도형 이미지	패턴 형식 (교차)	선 상감 이미지
7			
8			
9			
no	도형 이미지	패턴 형식 (원형)	선 상감 이미지
10			

본 연구에서는 초벌상감에 의한 표현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본론 2장에서 연구 제작한 패턴에 적용하여 도자장식 표현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보았다. 반복적인 선을 통해 만들어진 선 상감의 이미지는 작업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수많은 선이 뭉쳐있어 단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가는 선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무너질 것 같은 약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듯하다. 연구자는 반복적 선을 이용한 상감 장식을 일상적 삶에 빚대어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10】의 no. 2, 6, 10에서 볼 수 있는 선 상감은 얇은 선을 빈틈없이 뿔뿔하게 배치하여 전체를 구성하여 제작한 것이다. 처음 제작한 시작품의 패턴으로, 별다른 형태적 기교나 특별한 무늬 없이 보이는 표현을 통해 정직한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에 대한 생각과 그 과정에 담겨있는 응축된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no. 1, 3, 5의 패턴은 여백이 있는 선의 집합으로, 모양과 길이가 다른 선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것은 일렁이는 물과 바람결 같은 형상을 띄고 있으며, 여백이 주는 느낌이 삶의 여유와 같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내 외면의 다양함을 가꾸면서도 항상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no. 7, 8, 9는 점의 이미지를 통한 구성으로 도트 패턴과 체크 패턴처럼 보인다. 직선을 사용해 제작했지만 정적이라기보다는 유쾌한 분위기와 리듬감을 느낄 수 있으며 no. 8의 이미지는 마치 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지친 모두가 유쾌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루한 마음을 환기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no. 4의 이미지는 규칙적인 직선적 패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길이가 다른 선을 배열하여 불규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짧은 선의 표현에서는 삶을 살아가며 비교와 괘시를 통해 자신을 높이지 말고 무언가에 흔들리면서도 항상 자신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4. 시작품



【 작품 1 】 흑색 선 실린더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Ø90x245(h)mm , Ø96x252(h)mm

반복되는 짧은 선을 수평적 패턴으로 구성하여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다. 【표 2】의 짧은 선의 수평 방향을 【표 6】의 수평적 형식의 패턴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적 이미지는 【표 10】의 no. 6에서 볼 수 있다. 선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면적이 넓고 긴 실린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명도가 다른 검은 색 화장토를 사용하여 명도에 따른 느낌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2 】 회색 선의 사물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Ø173x205(h)mm



【 작품 3 】 회색 선 실린더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63x125(h)mm

【 작품 2 】, **【 작품 3 】**은 형태는 다르나 같은 패턴과 색상을 사용하여 일체감을 주고자 하였다. 형상은 기본 원통 형태와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기(器)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 표 10 】**의 no. 2, 6의 패턴을 사용하였다. 은은한 선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옅은 회색의 색화장토와 투명유, 하얀색의 매트유를 사용하였다.



【 작품 4 】 검은 점 실린더
백자토, 플레성형, 흑유, 산화소성
Ø90x245(h)mm

【표 10】의 no. 3 패턴 이미지를 참고하였으며 짧은 선을 세로로 구성하여 하나의 점으로 이미지화하였다. 검고 작은 점을 좁은 여백으로 일정하고 촘촘히 구성하였기 때문에 검은 점이 아니라 하얀 선을 그은 것 같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내부에 흑유를 사용하여 표면의 장식에서 보이는 점의 패턴을 강한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 작품 5 】 푸른 선 실린더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Ø80x85mm



【 작품 6 】 푸른 점 볼

백자토, 물레성형, 색유, 산화소성

Ø164x123mm

【 작품 5 】, 【 작품 6 】은 짧은 단선의 도형 이미지를 사용하여 수평과 교차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밝은 하늘색의 색화장토와 색유를 사용하여 푸른 바다를 담고 있는 것 같이 밝은 느낌의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태토와 화장토의 대비를 줄여 가볍고 생기 있는 느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 작품 7 】 검은 선 접시 세트

백자토, 물레성형, 무유, 산화소성

Ø110x42mm, Ø200x25mm, Ø285x25mm

【표 10】의 no. 10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선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유약을 시유하지 않고 접시의 안쪽과 바깥쪽 모두 선 상감을 사용하였다. 여백을 거의 주지 않고 안쪽과 바깥쪽 모두 촘촘하게 구성함으로써 짧은 수직선의 도형을 원형 패턴 형식으로 구성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질감의 느낌을 충분히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반복되며 쌓이는 선의 장식을 통해 시간의 축적과 견고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8 】 검은 선 작은 실린더

백자토, 물레성형, 흑유, 산화소성

Ø60x85mm

길이가 다른 선을 【표 6】의 패턴 이미지와 조합하여 재구성한 다양한 이미지를 작은 실린더에 장식하였다. 반복되는 선의 이미지와 이를 통해 패턴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패턴 형식의 변화에 따라 무거움, 가벼움 그리고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의 표현 등이 가능함을 한눈에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9 】 검은 점 합

백자토, 물레성형, 흑유, 산화소성

Ø80x105(h)mm

이 작품은 【표 10】의 no. 8 패턴 이미지로 제작하였다. 패턴은 곡선적인 원형의 이미지로서 등근 합의 형태와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패턴과 형태의 조화와 기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자 뚜껑과 몸체가 맞닿는 부분에 패턴을 적용하여 합이 닫히면서 결합되는 패턴에서 시각적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 작품 10 】 회색 선 찻잔 세트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잔 \varnothing 51x52(h)mm, 받침 \varnothing 105x8(h)mm, 플레이트 \varnothing 190x8(h)mm

회색 사선을 이용한 찻잔과 플레이트, 화병으로 구성된 찻잔 세트이다. 세트의 구성은 【표 5】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 이미지의 모양을 참고하여 반원 모양의 플레이트를 제작해 일반적일 수 있는 세트 디자인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선 상감의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감 장식과 다른 기물과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일상에서 차 한 잔의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다.



【 작품 11 】 검은 대각선 합

백자토, 물레성형, 흑유, 산화소성

Ø52x60(h)mm, Ø52x70(h)mm, Ø52x80(h)mm

수평적으로 구성된 대각선 패턴을 작은 합의 형상에 장식하였다. 선의 구성 방향의 변화를 통한 시각적 재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대각선의 방향을 한 칸씩 바꿔 크기가 다른 합에 적용하였고, 뚜껑은 손잡이가 없는 단순한 형태로 제작하여 표면의 장식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여백이 있는 사선이 장식된 합은 바쁜 삶에서도 여유를 잃지 말고 각자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담아놓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 작품 12 】 검은 선 컵

백자토, 물레성형, 흑유, 산화소성

합 \varnothing 45x85(h)mm, 받침 \varnothing 95x6(h)mm, 컵 \varnothing 70x90(h)mm



【 작품 13 】 검은 점 컵

백자토, 물레성형, 흑유, 산화소성

Ø78x65(h)mm

【 작품 12 】, **【 작품 13 】**은 세로 선과 가로 선의 사각형 도형 이미지를 수평과 교차 구성으로 적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컵의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기물의 1/3 지점까지만 유약을 시유하여 입이 닿는 부분의 쓰임을 고려하고 나머지 손이 닿는 부분에서는 상감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의도하였다. 표면에 나타나는 유약과 어우러지는 패턴을 통해 전체적인 패턴의 구성과는 또 다른 장식적 느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14 】 선과 사물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75x23(h)mm, Ø63x30(h)mm, Ø63x55(h)mm, Ø50x75(h)mm

짧은 가로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수직선, 방사선 등의 도형 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기존의 도형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백을 충분히 설정하여 시원한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형태는 면치기 기법을 활용하여 선상감과 대비되는 공간구조를 표현하였으며 노란색 색화장토를 사용하여 다채색에 의한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 작품 15 】 선과 향기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산화소성

Ø50x72(h)mm

【표 5】의 반복되는 선에서 도출 가능한 이미지 중 점, 삼각형, 사선, 수평선, 곡선을 교차 형식의 패턴으로 구성하여 작품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패턴 형식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하늘색과 노란색, 회색 등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화장토를 사용하여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턴을 구성한 도형 이미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모양의 소품을 추가로 제작하여 입체적 확장성을 가진 오브제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Ⅲ. 결 론

예술 활동에 있어서 선은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점차 단순한 용도를 넘어 작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담는 주요한 조형표현의 한 요소이다. 선이 갖는 이러한 기능과 조형적 의미는 현대예술에 있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조형적 전달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을 반복적으로 구성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형적 도형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상감 기법으로 도자기에 장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조형적 미감과 감성을 가진 도자 장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순한 선에 ‘반복’이라는 표현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선이 가지고 있는 질감과 패턴의 특성을 가진 도형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분절’이라는 조형 표현 방법을 통해 앞서 도출된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절취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가진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어 ‘밀도’의 변화에 따라 윤곽을 구체화하거나 고밀도와 저밀도의 선의 집합을 통해 무게감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미지의 표현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선의 ‘반복’과 ‘분절’, ‘밀도’라는 조형 행위를 통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뿐만 아니라 질감 등을 얻을 수 있었기에 선의 표현을 통해 담고자 하는 의미를 시각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후 장식으로서의 구체화를 위해 도형을 수직, 수평, 교차, 원형의 형식으로 패턴화하였으며 이미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패턴의 ‘단순성’, ‘연결성’, ‘주목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패턴 제작에 있어 이러한 주요 요소를 감안하여 패턴의 간략화와 기하학적 구도와의 연계, 그리고 시인성 등을 감안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의 조형적 표현에 의한 패턴 작성과 이를 활용한 도자 장식으로서의 표현은 장식성뿐만 아니라 패턴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감정을 하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선의 반복에 의한 이미지 형상화 과정은 선의 길이, 방향, 강약 등의 조절 기능 여부에 따라 작가 또는 보는 이의 심상에 따른 의도 및 의미 부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선을 통한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에서 더 나아가 반복이라는 행위 자체에 담긴 연구자의 축적된 시간과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심리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자 장식 표현에 있어서는 선의 명확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상감 기법을 선정하여 다양한 선의 형태와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와 제작 방법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도구에 있어서는 소재에 따른 선의 질감 표현이 크게 좌우되며 특수강 소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화장토 도포 과정에서의 갈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초벌 상감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에 적합한 화장토 비율과 색상을 제시하였다.

상감기법에 의한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흙을 채우기 위해 비움이 필요하고 채움이 있어야 비움이 있을 수 있다는 순환의 과정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반복적으로 선을 긋는 과정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과 더불어 작업에서만 아니라 연구자의 마음에 있어서도 성숙한 내적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 선의 조형적 이미지에 의한 선 상감기법이라는 장식 표현 연구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심상을 간접적이거나 선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선의 패턴화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조형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었음은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의 패턴화에 중점을 둔 관계로 기물의 형상적 표현에 소홀했던 아쉬움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한 도자 장식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박대순, 《현대 디자인 용어사전》, 디자인 오피스, 1996
-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 실제)》, 미진사, 2001

<학위논문>

- 박소연, 「반복적 미술 행위를 통한 자아치유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백희경, 「반복적 선(線)에 의한 視覺的 表現 研究 : 本人의 作品(taping stripe)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6

ABSTRACT

A Study on Wire Inlay Porcelain Decoration Using Formative Images of Lines

Park Minsook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Lines are a simple and fundamental means of expressing and conveying objects' morphological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Lines can represent various feelings and emotions depending on the changes in directions and flows. As such, lines capable of visual expression conveying emotions are convertible into a concrete, and their role is expanding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Lines, mainly used in paintings and sculptures, are also a primary means of expression in porcelain decoration. In contrast, the wire inlay technique is regarded as a method to further materialize the visual attributes of lines. Goryeo Celadon is a quintessential example of the line inlay technique, and the splendor of Goryeo Celadon may originate from technical excellence.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attributes of lines,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straight line, which possesses the purest characteristic and co

ncise shape among the types of lines. The expressive means of “repetition” was utilized to evoke empathy through the visual forms in aestheticizing straight lines. The act of repeating lines has led to deriving various images in the expressive forms of segmentation and density based on the extension of the surface through and the texture of the derived surface. Subsequently, patterning based on geometrical shapes, such as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was performed to present the image derivation method, mentioned above, and patterning, a series of “aestheticization process of lines.”

This study has selected the inlay technique as an expressive method utilizing definite shapes and concrete texture in expressing lines as porcelain decoration and conducted experiment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aterials and proportions needed for necessary and engobe.

Ultimately, this study has sought the possibility of an expression method in porcelain decoration by expressing line images derived through a series of aestheticization processes as lines with sensitivity and emotion by using the wire inlay technique.